

2009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(2)

- I. 최근 국내경제 흐름
- II. 2009년 세계경제 전망
- III. 2009년 국내경제 전망
- IV. 2009년 업종별 경기 전망
- V.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

글 : SERI 황인성 수석연구원

II. 2009년 세계경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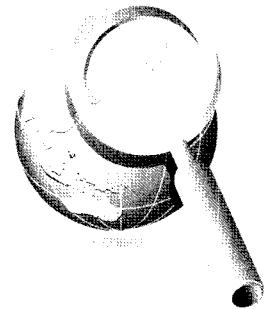
1. 2009년 세계경제 : 침체국면에 진입

■ 2009년 세계경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1.8% 성장에 그칠 전망
(PPP 기준으로는 3.0%)

- 선진국의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, 인도 등 신흥국 경기도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진입
 - 미국에 이어 유로지역은 물론 일본도 내수위축과 순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0.5% 미만에 그칠 전망
 - 신흥국의 경우 수출 둔화를 내수성장으로 만회하기는 역부족
- 이는 IT버블 붕괴로 세계경제가 침체되었던 2001년(세계경제성장률 1.5%)과 유사한 수준

■ 1970년대 초반과 1980년대 초반에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을 전망

- 인플레이션 압력은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선진국부터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임
 -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석유수요 감소와 투기자본의 원자재시장 이탈이 유가 하락을 촉진
 -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빠르게 진정되는 반면, 개도국과 신흥국의 물가안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



- 반면,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주택경기 침체와 주가 하락 등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과 신용경색으로 오히려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해야할 상황
- 따라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금리 인하 등 금융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전망

〈세계경제 전망〉

구 분		2007년	2008년			2009년
			상반기	하반기	연간	연간
세계 경제	시장환율 기준	3.7	3.2	2.4	2.7	1.8
	PPP 기준	4.8	4.4	3.5	3.9	3.0
미 국		2.2	2.3	1.0	1.7	0.1
유로지역		2.6	1.7	0.6	1.2	0.2
일 본		2.1	1.0	0.7	0.9	0.5
중 국		11.9	10.4	9.0	9.7	8.1
러시아		8.1	7.8	6.0	6.9	5.5
인 도		9.0	8.0	6.0	7.0	6.5
ASEAN		6.3	5.9	4.3	5.1	4.6
중 동		5.9	6.2	6.0	6.1	5.9
중남미		5.6	5.2	4.0	4.6	3.2

중국경제는 2009년 중 감속성장 예상

- 2003~2007년간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이 10.6%에 이르는 등 고도성장으로 경기과열 및 물가압력이 가중
 - COI(중국경제 과열지표)가 2007년 12월부터 기준치(1.2)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등 경기과열이 심화
-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감속성장이 예상
 - 올림픽 특수 소멸,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건설투자가 둔화될 전망
- 부동산 가격 하락 → 부실자산 증가 → 금융기관 채권 부실화 → 대출기피 → 투자위축
 - 생산원가 상승, 위안화 절상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세계경제의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수출증가세가 둔화
 - 소비도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과 구매력의 약화로 투자와 수출 감소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할 전망
- 2009년 중국경제는 8%대 초반의 연착륙을 예상
 - 중국정부는 성장기조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'일보일공(一保一控)정책' 으로 경제정책을 전환

- 중국정부는 연착륙을 위해 수출 및 투자 확대정책을 강화할 전망
 - 수출증치세(부가가치세)의 환급률 상향 조정
 - 기술이전 효과가 있는 외자만 유치하는 '외자선별정책'의 일정기간 유예 가능성
 - 위안화 절상 속도도 상당 수준 둔화
- 또한 내수진작을 위해 1,500억 위안 규모의 減稅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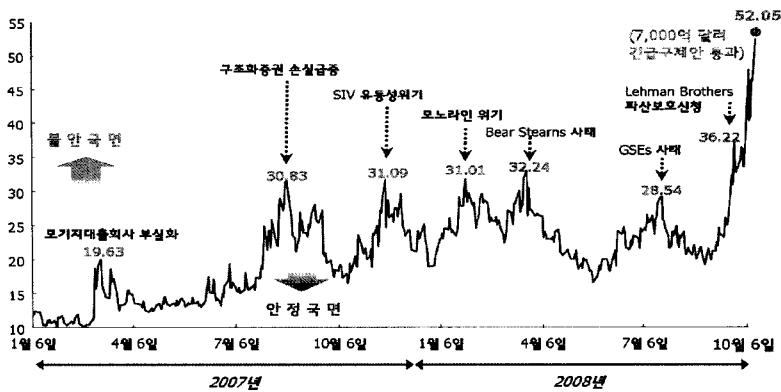
2.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 지속

글로벌 금융불안이 심화

■ 美 긴급구제금융안의 가결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감이 증폭

- Bear Stearns 사태 이후 일시적으로 안정국면에 진입했던 국제금융시장은 GSEs 사태와 Lehman Brothers의 파산보호신청을 계기로 불안감이 재개
 - 특히, 美 의회의 7,000억 달러 긴급구제안 통과 이후에도 VIX 지수가 사상최고 수준인 69.95를 기록(2008. 10. 10 기준)
- 긴급 경제안정화 법안(EESA)이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효과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
 - 시장에서 거리가 실종된 부실자산들이 많아 인수 대상 자산의 가격산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
 - 정부가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자산부터 인수하는 역경매 방식을 택할 경우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
- 금융기관들의 자본 확충도 해결해야 할 과제
 - IMF는 예상손실 규모를 1조 3,0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나, 전 세계 금융회사들의 손실 상각처리 실적은 5,231억 달러 수준(2008. 9. 25 기준)

〈 변동성지수(VIX) 추이 〉



자료: Thomson Reuters, Datastream.

모기지 부실이 他 부문으로 확산됨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감이 지속

■ 모기지 전반이 연체율 상승 및 카드론, 오토론 등의 각종 대출채권 부실화로 금융회사들은 추가적인 손실 상각위험에 직면

- 주택경기 침체 지속 및 실물경기 둔화 등으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자산가치 하락 및 부실채권 증가로 인해 손실처리 규모가 더욱 증가
 - 모기지 전반의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자금회수로 신용정책의 재연 및 유동화채권 가격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
 - 신용카드 및 오토론 부실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실물경기에도 악영향
- 주택담보대출 및 상업용 모기지대출에 따른 손실이 지방 중소형은행에까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

기업부도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국제금융시장 불안도 가중될 전망

■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기업 부도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전망

- 경기하강 추세가 이어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파산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투기등급채권의 부도 위험성이 고조
- CDS 거래상의 기초자산 대부분이 구조화금융상품(MBS, CDO 등)과 고수익채권이라 실물경기 위축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불가피
- 보장매입기관(CDS 매수)DML 경우, 보장매도기관(CDS 매도)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CDS 계약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줄 수 없게 되면서 손실이 발생
 - 보장매도를 한 보험회사, 헤지펀드 등의 경우 최근 미국기업의 채무불이행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손실 또는 파산위험에 직면할 우려

3. 국제유가

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

■ 석유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로 투기수요가 급감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기에 비해 2배 이상 빠르게 하락

■ 두바이오일의 평균가격이 2008년 하반기에는 배럴당 101.60달러, 2009년에는 85.04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

▶ 다음호에 계속